

## 프랑스의 과학 기술 예산

김 형 수

(예측 조사실)

## 1. 프랑스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 방침

연구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역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를 갖는 중점 분야는 산업 연구 개발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대규모 과학 기술 개발 추진, 대학 내의 연구 개발과 연구 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적극적인 과학 기술자의 고용 및 훈련 등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과학 기술 투자를 위한 노력은 '82년 「프랑스 연구 활동을 위한 방향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과학 기술 예산의 편성 및 조정

프랑스의 과학 기술 관계 예산은 민수연구 개발 예산(civil R&D budget)과 국방 연구 개발 예산(defence R&D budget)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연구 기술성이 관장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의 편성 절차는 각 성·청이 필요한 연구 개발 사업 계획을 연구 기술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성·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 요구는 연구 기술성의 주관 하에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연구 기술성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민수 연구 개발 예산안이 결정되면, 연구 기술성 장관은 이 예산안을 경제 재무 예산성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괄 타결을 함으로써 연구 개발 예산이 확정된다.

한편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을 비롯한 통신 개발 예산 및 대학의 연구 개발 예산의 편성은 연구 기술성이 간섭하지 않고 관계 부처의 요구에 따라 예산 당국인 경제 재무 예산성에 의해서 편성·확정된다.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의 조정에 있어서는 연구 기술성이 예산을 편성할 때 부처 간 조정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조정 위원회는 관계 부처 담당관, 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 기술성의 담당관으로 구성되고 조정 위원회의 의장은 연구 기술성의 담당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

## 3. 과학 기술 예산의 구조 및 추이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을 제외한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최근 몇 년 간 연 7%이상씩 증가되어 왔으며, '92년의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전체 과학 기술 예산의 66%인 511억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88년 이후 정부의 공공 경비 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은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우선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해당 부처의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은 해당 부처의 책임 하에 배분되지만 연구 기술성에 통보를 해야 하고 부처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 기술성이 개입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할 수 있다.

민수 연구 개발 예산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민간의 연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세 혜택(tax credit)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 감면으로부터의 혜택액은 연구 개발 예산에 직접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92년 총혜택은 45억 프랑에 달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 요원들의 연구 활동 분야에 따라 고등 교육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의 일부가 정부로부터 교육 혜택(education credit)을 받게 되는데 민수 연구 개발 예산에

서 이미 책정된 고등 교육 기관의 연구 개발비 22억 프랑을 제외하고도 '92년에 총 100 억 프랑 정도를 혜택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민간의 연구 개발 촉진 수단으로서 직접적으로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민수 연구 개발 예산을 기능별로 나누어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92년도의 전체 민수 연구 개발 예산 중에서 국립 우주 연구소(CNES), 원자력 위원회(CEA)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 원자력, 민간 항공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한 예산 지출 구성비는 33.5%를 차지하였으며 '91년에 비해 1.9% 증가한 171억 2천 2백만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다. 대규모 과학 기술 프로그램 중에서 원자력 분야의 연구 개발 지출 규모는 '91년 수준인 약 62억 프랑으로 동결되고 민간 항공기 분야는 약 23억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우주 분야에 대한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약 86억 프랑의 막대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출비중은 민수 연구 개발 예산 중에서 11.9%를 차지하였으며 15.5% 증가한 60억 8천 8백만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간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액은 '92년도에 45억 프랑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은 100억 프랑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민수 연구 개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에 속해 있는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기초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학의 연구 개발 지원으로서 주로 인건비인 경상비가 193억 6백만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타 프로그램의 지원에 책정된 규모는 각각 47억 3천 4백 프랑, 38억 1천 8백만 프랑이다. 국립 과학 연구소(CNRS), 국립 농학 연구소(INRA) 등의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약 216억 프랑이고, 대학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약 22억 프랑으로 책정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는 기초 연구에 필요한 연구 시설 투자에 우선적인 보조가 주어진다.

<표 1>기능별 민수 연구 개발 예산(BCRD)의 구성

(단위:백만 프랑)		
기능별	1992년	전년 대비 증가율
○ 대규모 과학 기술 Programme	17,122(33.5)	1.9%
○ 산업의 기술 개발	6,088(11.9)	15.5%
○ 대학 및 정부 연구 기관 등	27,858(54.5)	8.7%
- 경상비	19,306(37.8)	9.1%
- Programme 운영비	4,734(9.3)	5.6%
- 기타 장 단기 Programme 지원	3,818(7.5)	10.1%
총 계	51,068(100.0)	7.0%

자료: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1991, 1992.

한편 부처별 민수 연구 개발 예산(BCRD)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예산(DO+CP)에 있어서 전체 연구 개발 예산에서 연구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

중은 '92년에 56.2%, 기타 부처는 43.8%를 나타내고 있어 연구 기술성이 절반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당해년도의 경상비와 정부가 허가한 예산을 합한 예산(DO+AP)에서도 연구 기술성의 예산은 '92년도에 약 54.7%를 차지하여 279억 프랑이 책정되고 있으며, 기타 산업성, 통신 우주성, 운수성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기술성의 예산은 연구 기술성에 속해 있는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92년도 연구 기술성의 총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받는 연구 기관은 CNRS이며 그 비중은 42.4% 차지하여 199억 프랑으로 책정되어 있다.

<표 2>부처별 밑수 연구 개발 예산(BCRD)의 구성

(단위:백만 프랑, %)

부 처 별	DO+CP			DO+AP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연구 기술성	24,158 (55.7)	25,633 (57.3)	27,106 (56.2)	24,808 (54.4)	26,099 (54.7)	27,945 (54.7)
기타 부처	19,198 (44.3)	19,100 (42.7)	21,031 (43.8)	20,759 (45.6)	21,547 (45.3)	23,123 (45.3)
총계	43,354 (100.0)	44,733 (100.0)	48,047 (100.0)	45,367 (100.0)	47,746 (100.0)	51,068 (100.0)

주: 1. DO는 당해년도에 지출되는 경상비율 나타내고, CP는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예산이며, AP는 당해년도에 정부가 지출을 허가한 예산임.  
2. 1992년은 계획치를 나타냄.

자료: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1991, 1992.